

수해 복구 자원봉사 쏠림현상 아쉽다

봉사 편한 시내 인력·장비 집중
시골·도시 외곽지역은 태부족
쑥대밭 된 농가 일손 없어 발동동
이재민 소외없게 적재적소 분배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지역에 자원봉사자들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특정 수해 현장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구 인력이 적절하게 지원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시 서구 서창동 가구백화점(1652㎡)에는 13일 복구인력만 100명이 넘게 몰렸다. 광주시자원봉사센터와 광주시 안전모니터봉사단 소속 봉사자 40여명, 공군 1전투비행단 소속 장병 60여명이 수해복구활동을 펼쳤다. 물에 잠긴 가구를 옮기고 가구를 뒤덮은 흙을 털어내는 데 100명이 넘는 복구인력이 몰리면서 백화점 내부는 밭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복잡했다. 백화점을 찾는 자원봉사인력들로 교통정체까지 4명이나 투입돼 교통 정리에 나서는 장면도 연출됐다. 비슷한 시각, 4958㎡에 이르는 광주시 서구 세하동 화훼단지에는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흘리며 힘을 보태고 있었다. 화훼단지가 물에 잠겨 대부분의 꽃들이 쓰러졌고 진흙으로 가득차지만 일손이 부족해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는 실정이다. 화훼단지에서 입점한 A씨는 "자원봉사자들 외에 다니던 교회에서 교우분들도 도움을 주셨다"며 "할 일이 많아 복구하는데 도움을 줄 인력이 더 필요하다, 구청에서 지원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광산구 임곡동도 일손 부족으로 복구가 미뤄지다보니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주민 11명이나 됐다. 이날 임곡동 피해 현장 복구에 나선 인력은 55명으로 작물재배 농가에만 도움이 손길이 닿았다. 인근 다른 농가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복구 인력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곡동 관계자는 "11일, 적십자 자원봉사자 30여명이 3가구를 지원했지만 다 끝내지 못해 14일 10명 정도가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정 수해현장에만 장비와 인력이 집중되면서 다른 침수 피해 현장 복구 작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지역 수해 복구 현장도 비슷한 분위기다. 피해가 집중된 구례지역에 2164명의 자원봉사 인력이 투입됐고 곡성(566명), 담양(540명), 나주(510명) 등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에 나섰다. 마을 전체 75가구가 물에 잠긴 곡성 신리마을의 경우 일손이 없어 진흙으로 범벅이 된 비닐하우스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마름동 한 가구백화점에서 자원봉사자들과 공군 장병들이 빗물에 젖은 가구를 씻고 있다.

복구는 생각도 못하는 지경이다. 이윤희(57) 이장은 "복구 인력을 구할 수 없다"면서 "집 내부 가구를 들어내는데도 사람이 모자라 힘에 부치는 데 하우스 복구는 아예 엄두도 못낸다"고 말했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광주에서는 모두 2848곳이 피해를 입고 565억의 재산 피해를 냈고 전남에서는 주택 2790채, 농경지 7064ha 등이 물에 잠기며 집계된 피해액만 현재까지 4277억에 달한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최악 물난리 속에도 시민의식 빛났다

구례 최봉석씨·곡성 김재덕씨
개인보트로 곳곳 돌며 구조하고
집에 갇힌 노인·장애인 등 대피시켜
위험 감수한 의인들 감동 선사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주변 이웃들의 생명을 구한 시민들의 뒷배기가 전해지면서 훈훈함을 주고 있다. 구례의 최봉석(43)씨는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불어난 섬진강물에 제방이 무너지자 배를 몰고 다니며 지역민들을 구조했다. 봉동리 일대에서 농기구 판매와 대여업을 하는 최봉석씨는 순식간에 빗물과 강물이 들어차 마을이 물에 잠겼을 당시 낚시용 보트를 활용해 이웃들 구조에 나섰다. 최씨는 '아파트가 물에 잠겼다. 아내와 4세 아이가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자 평소 이용하던 낚시용 보트를 후배에게 연락해 가져오라고 한 뒤 현장을 돌면서 구조활동을 펼쳤다. 그는 아파트 계단 옆 창문에 보트를 대고 창문을 뜯어내고 포대기에 싣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여성을 구조했다.

최씨는 이후 물에 잠긴 아파트와 빌라, 상가 등을 돌면서 많은 30명이 넘는 지역민들을 구했다. 농기계와 사무실 등 최소 5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최씨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라며 "물이 빠지고 난 뒤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들을 보니 오히려 힘이났다"고 말했다. 김재덕씨는 곡성 침수 현장을 돌며 구조활동을 펼쳤다. 김씨는 곡성군 곡성읍 금예마을 이장으로, 이 마을도 섬진강 범람의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마을 방송으로 "신속히 대피하세요"라고 외쳤고 혼자 사는 마을 노인들에게 달려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부축, 인근 대피소로 이동시켰을 때쯤 곡성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인근 대촌 2리 마을에 있는 어린이가 살려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정확한 장소를 알려달라는 전화였다. 김 이장은 아이 이름만으로 정확한 장소를 찾기 어렵다며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미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올라 있는 상태로, 물고 갔던 차 시동도 꺼져 물 속을 걸어 들어가 아이와 엄마를 찾아낸 뒤 119로 연락, 소방보트로 함께 고지대로 대피했다. 김 이장은 또 옆집 할머니가 문이 열리지 않거나



구례 도심이 폭우로 잠긴 지난 8일 오후 최봉석(앞 보트 왼쪽)씨가 자신의 보트를 타고 고립된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마을로 가 대피시키는 등 4시간 동안 마을 일대를 돌며 구조활동으로 23명의 주민을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다. 어르신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다는 김 이장은 "당시에는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한명이라도 더 빼내와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면서 "누구나 그 상황이라면 똑같이 행동 했을 것"이라고 수줍게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선물 돌린 나주배원에농협 조합장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 무효형

조합원들에게 굴비·사과 선물세트 제공하느라 등 기부행위를 한 협회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주배원에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주배원협 B전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자격을 잃게 된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A씨는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말부터 2월 초, 설 명절을 계기로 B 전무와 공동으로 조합원 43명에게 굴비 세트(2명), 사과 1상자(41명)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다. 윤 판사는 "이 사건은 조합장이 조합장선거의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특정 물품을 제공한 행위로, A씨 등이 굴비세트나 사과상자를 제공한 행위는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조합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설 명절선물 명목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이뤄진 조합장선거에서 A씨는 25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A씨 등은 직책 등을 이용해 수사 도중에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범행 후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나주배 원에농협 조합원 등이 제기한 '조합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대환대출형' 보이스포싱 경계령 을 광주 피해사례 중 83% 달해

광주 경찰이 '대환대출형' 보이스포싱 경계령을 내렸다. 1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400건(피해액 78억)의 보이스포싱 피해사례 중 83%에 이르는 331건이 '대환대출형' 보이스포싱으로 나타났다. 제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신규 대출을 신청했던 경우가 주요 피해자들이었다. 경찰청은 65건의 대환대출형 피해 사례를 분석, 이들 피해자들이 범행 전 저축은행·캐피탈·카드 등 43개 금융권에서 80건의 대출을 받아 상황해소다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말에 속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광주 경찰은 이같은 점을 감안, ▲은행 앱을 설치해 대출신청서 작성을 권유하는 행위 ▲전화 통화 중 '은행법 위반', '약관 위반',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으라' 등의 말을 듣는 경우 등은 '100% 보이스포싱 범행'이라며 신고를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신협 815 해방 대출은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협 815 해방 대출은 대출기간 최대 5년 (기연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협 815 해방 대출은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